

무림 인권경영 선언문

무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모든 사업장과 경영활동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합니다.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고객과 협력사를 포함한 무림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림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10대 인권경영 원칙을 선포합니다.

1. 결사의 자유

헌법 및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인종, 연령,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임신 및 결혼여부, 정치성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5.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합니다.

6. 근로조건 준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한 정규·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등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수립 및 운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9. 공급망 인권경영 관리

공급망의 인권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공급망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10. 고객 및 지역사회 인권보호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객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대표이사 사장

이도준